

## NO. 1

현재 전세계는 기후 인플레이션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한 연구 보고서에서는 기온이 1도 높아질 때마다 물가가 3% 포인트씩 증가한다고 설명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기후 인플레이션은 대한민국 식량 안보에 어떠한 영향들을 미칠까요? 현재 우리나라 양배추의 가격은 이번년도 들어 160% 증가하여 주목을 받기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물가 상승 뿐만이 아닙니다. 한 보고서에서는 2080년에는 대한민국의 사과 생산지가 거의 소멸할 것이라는 예측을 보고하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이러한 물가 상승은 신선식품에 만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실제로 전세계의 인스턴트 커피의 주재료를 대부분 수출하는 한 기업에서는 기후 인플레이션의 영향으로 재료 가격을 60% 상승시켰으며, 이는 한국의 저가커피 전문점들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러한 신선식품의 생산 가능 지역 감소, 물가 상승과 국민의 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는 식품의 직접적 가격 증가는 대한민국 식량안보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렇다면 현재 한국 정부는 어떻게 기후 인플레이션에 대응해야 할까요? 저는 총 2 가지의 방법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1 번째는 스마트팜 관련 사업에 지원을 해 주는 것입니다. 현재 신선식품의 급등하는 가격은 대부분 이상기후가 가장 큰 영향을 미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상기후에 영향을 받지 않는 스마트팜은 기후 인플레이션에 대응하는 직접적이고 간단한 해결책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스마트팜 관련사업은 급등하는 에너지 가격 때문에 운영비용이 상승하여 경제성을 확보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투자가 활발해져 경제성을 확보하게 된다면 기후 인플레이션에 영향을 받지 않는 대한민국의 기후 인플레이션에 대응하는 직접적 해결책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뿐만이 아닙니다. 에너지를 활용하여 식물을 키운다는 스마트팜의 근본적인 아이디어는 온실가스를 감축해 기후변화를 막는다는 취지와 상충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안하는 2 번째 방법은 '기후변화는 식품을 더 비싸게 만든다'라는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

NO. 2

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정부와 민간의 노력으로  
이러한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이 되면, 정부가  
재생에너지에 관한 사업에 투자하는 것에 지지率  
받을 수 있고, 이는 활발한 재생에너지 관련  
사업의 성장을 이루어 내고 이를 통해 기후변화  
에 대한 실질적 해결책을 제공 할 뿐만 아니라  
스마트팜이라는 해결책의 이점 또한 제공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러한 정부의 대응으로 기후 인플레이션  
으로 인한 대한민국의 식량안보를 지켜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